

실버세대의 인터넷 활용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Silver Generation to Use Internet

김 미 량* 김 태 응** 김 재 현***
Mi-Ryang Kim Tae-Ung Kim Jaehyou Kim

요 약

인터넷과 관련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적은 없다. 정보는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고 관련 기술 역시 그에 걸맞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이처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노인(실버)세대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에 편하게 접할 수 있으며 기존의 관행에 비해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인생이 재미있다. 본 논문은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영향요인을 식별·평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인터넷의 이용·용이성, 인터넷에 대한 유용성인식 정도,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세대 간 갈등, 소득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테스트한다. 56세 이상의 노인 288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모형을 검증한 결과, 유용성과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 세대 간 갈등도 유용성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와 수입은 유용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기효능감과 수입은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실버세대의 인터넷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도 논문 말미에 포함시켰다.

Abstract

No other change in Korea has offered greate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n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nd its related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is expanding at an unprecedented rate, and enormously rapid strides are being made in the technology for accessing the ever growing wave of information. The quality of life for silver generation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achieve because of the complexities of life in today's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dependent society. Life is more interesting when one knows what is going on, what opportunities exist, and when alternatives to current practices can be discovered and utilized with 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attitude and planned behavior toward using internet for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employ the intention to use internet,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self-efficacy, stress factor, generation gap, and income as major research variables, and collected 288 survey responses from senior citizen over 55.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internet, and that the self-efficacy, the ease of use and generation gap has some impact on the attitude, but the stress factor and the income level do not appear significant to the attitude. It was also found that the self-efficacy and the income level determine the level of ease of use. In addition, some useful suggestions concerning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silver generations are presented.

☞ keyword : Silver Generation, Internet,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정 회 원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교수
mrkim@skku.ac.kr(제1저자)

** 정 회 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tukim@skku.edu

*** 중신회원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교수
jaekim@skku.edu(교신저자)

[2008/06/30 투고 - 2008/07/07 심사 - 2008/09/26 심사완료]

☆ 본 연구는 2008년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R01-2006-000-10954-0)(2008)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시대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양식과 의사소통 방식에 총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노년층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표현하며 젊은 세대에 못지 않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로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장노년층의 정보격차, 즉 인터넷 접근 및 활용면에서의 불평등성은 정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성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1].

그러나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중반 이상의 노년계층 상당수는 아직도 인터넷 기술 기반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통계청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2007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 명으로 총 인구의 9.9%를 차지하여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로 나타났다[2, 3].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취업률은 30.5%로서 약 70%에 달하는 고령자들이 비경제 활동자로서 지내고 있으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2] 직장에서의 정보 활용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년계층 또는 실버세대가 국가 성장의 중심에서 외면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손실일 뿐 아니라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충분한 소득이 있어 정보화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소

수의 계층을 제외한 상당비율의 실버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정보 활용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삶 자체가 매우 불편해지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 자체가 힘겨운 부담이 된다.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세대와의 눈높이가 맞지 않을 때 본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적 혜택은 물론 소득 창출의 기회조차 놓치기 쉽다[4].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활용능력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과거, 문맹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에 준하는 매우 기본적인 소양 능력이 되었다.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보화가 일상 생활화된 젊은 세대들과의 사회적·문화적 갈등이 심해지면 실버세대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립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더구나 앞으로 무선인터넷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면 또 다른 차원의 정보격차가 대두될 수 있다. 2005년 말 현재에도 인구의 27.2%에 해당하는 실버세대와 장애인계층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안하고 있는 등 디지털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보소외집단이다[5].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적응 및 학습동기가 미약하고 학습 기회조차 제공받기 힘든 실버세대는 별다른 지원이 없을 경우 정보화의 취약계층으로 장기간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 간의 정보의 생산적 활용의 차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정보격차 개념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의 적용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한 생산적 정보 활용 모델개발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 최두진 외[6]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인정보화 교육은 실버세대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 본 논문에서는 노년계층이라는 대신 실버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노년계층보다는 실버세대라는 용어가 노인 이미지를 다소나마 역동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 같음.

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정보화 교육을 받은 노인 2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의 73.3%(209명)는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삶의 변화영역으로는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194명(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감이 생겼다' 187명, '아는 것이 많아져 유익해졌다'·'생활이 즐거워졌다' 각각 186명, '다른 노인들에게도 컴퓨터를 배우라고 권한다' 185명 순이었다[7].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과 활용은 실버세대들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보다 쉽게 해 실버세대의 외로움과 불안감, 우울감 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실버세대의 인터넷 활용 정도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층의 인터넷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버세대들의 효과적 의사소통채널로서의 인터넷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유용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본 연구틀로 설정하고, 인터넷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용성에 대한 인식,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재정적 여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평소에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세대간의 갈등 등의 요인들이 인터넷 활용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버세대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촉진 및 장애요인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이나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실버세대의 인터넷활용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실버세대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정보화수준이나 정보격차에 대한 평가나 정보화 사회에 대한 태도 또는 인식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예를 들어 실버세대의 정보화수준이나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연구[5, 6, 8]나 김정연의 연구[9]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노년층의 ICT나 정보화 사회에 대한 태도 또는 인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0, 11, 12]. 예를 들어 김정연 등의 연구[9]에 의하면 일반 국민에 비해 장노년층의 정보격차는 아직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장노년층은 정보기술의 채택과 이용 대부분에 있어 연령에 대하여 부(-)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채택뿐만 아니라 이용과정에서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정보 재화의 채택 단계에서부터 진입이 저조한데 이들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습득기회의 제공과 신기술 이용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실버세대의 정보화에 대한 태도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박충선[10]은 정보화 교육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화 사회는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금룡[11]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서혜경

[12]는 노인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분석연구에서 컴퓨터유용성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나 실제 사용과 관련된 자신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김정언[9] 등 역시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보기술의 채택과 이용이 저하되며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대한 자신감 고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활용이나 사용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서혜경[12]가 노인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연령, 미혼자녀와의 동거여부, 컴퓨터관련 정보에의 노출 정도 등이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김정언[9] 등은 정보기술의 채택과 이용 대부분에 있어 연령이 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표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실버세대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Kim, Park, Lee[13]는 경험, 소속 조직의 지원, 주관적 규범, 업무속성 등이 인터넷의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으며, Porter와 Donthu[14]도 나이, 교육수준, 소득, 인종 그리고 인터넷 접근의 장애물 등이 인터넷의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태도 그리고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두 연구 모두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별히 실버세대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분하여 테스트하지 않았다. 그 외 DiMaggio, Hargittai, Celeste, Shafer[15] 등은 개념적 차원에서 인터넷 사용의 1차적 영향요인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접근성, 활용기술, 사회적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3가지 요인의 선행요인으로 가족, 교육, 소득, 직업, 인종 등 사회통계학적 요인을 열거하고 있다. 다만 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대상 자체도 일반이라 실

버세대의 인터넷 활용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실버세대 ICT 수용에 관한 연구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 활용보다는 실버세대의 초보적인 컴퓨터 학습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가 주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 ICT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버세대들이 주위사람 또는 사회구성원 일반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는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16], 나이와 관련된 고정관념, 자신감 결여,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과정 상의 염려 등이 제시된 바 있다[16, 17, 18]. 다만 최근 발표된 Lam & Lee[19]의 실버세대에 대한 연구는 다소 심도 깊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위사람들의 격려와 지원이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사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후자의 두 요인은 다시 인터넷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인터넷 사용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활용에 연령대, 수입, 자기효능감, 염려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가 부분적으로 진행된 바 있지만, 여러 요인들을 묶어 하나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연구모형과 가설

3.1. 인터넷 활용의도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경영 정보학분야의 이론인 기술수용모형을 적절히 보완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기술수용모형은 Davis[20]에 의하여 정립된

모형으로 정보기술사용자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의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된다. 기술수용모델은 기대이론, 행동의사결정이론, 혁신확산이론, 자기효능이론, 인간과 컴퓨터관계이론 등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 새로운 기술 수용에 대한 사람들의 사용 및 수용의도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에 의해 결정되고 행동의도에 대한 외부적 변수들의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의해 매개되며, 유용성은 용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21]. 이후 Davis[21]와 Davis et al.[20]의 연구는 기술수용모델로 명명된 이후 신기술 수용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확장·응용된 바 있다[21, 22, 23, 24, 25, 26].

실버세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프로세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활용의도를 최종 종속 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터넷 이용의 용이성과 인터넷 활용에 대한 태도를 설정하였다. 기존의 TAM 연구논문에서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가 다시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도 활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과 태도를 유사 요인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 실버세대들이 인터넷에 대해 가지는 인지된 유용성은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활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활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용이성은 실버세대들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인터넷 활용 유용성에 관한 선행요인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재정적인 수입,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평소에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세대 간의 갈등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Bandura[27, 28]에 의하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들을 자신이 과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으로 개념을 한정 지우고자 한다.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인터넷 활용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버세대의 수입과 인터넷 활용에 대한 유용성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이 많은 노인세대의 경우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삶의 질 유지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생각할만한 정신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29]. 설사 본인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잠재력은 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입이 많은 실버세대들은 인터넷 활용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입은 인터넷 활용에 대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실버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정보격차라는 측면에서 비수혜자군에 속한다. 또한 신기술수용에 있어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그룹에 속한다. 대개의 경우 생활에의 인터넷 활용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능력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관심이 오히려 인터넷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가능

성이 높다. Lam & Lee[19]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관련 염려나 초조감이 인터넷 사용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사용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유용성 요인을 매개하여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 집에 거주하거나 가까운 주위서 볼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 활용에의 지나친 몰입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불필요한 인터넷의 활용과 과다한 낭비 등은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인터넷 활용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버세대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느낄수록 인터넷 활용에 대한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H4 : 실버세대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가지는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인터넷 활용에 대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 실버세대들의 수입이 많을수록 인터넷 활용의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 실버세대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인터넷 활용의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 실버세대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세대 간 갈등을 느낄수록 인터넷 활용의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인터넷 활용 용이성의 선행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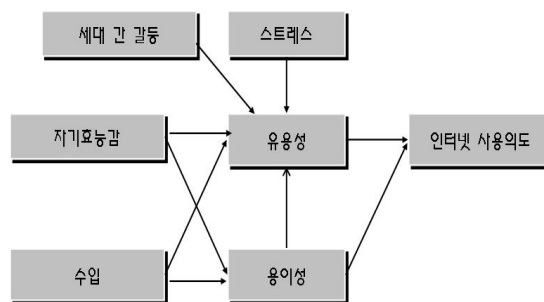
기술수용모형에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용이성의 선행요인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Hwang

과 Yi[30] 등을 포함한 많은 TAM 관련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용이성의 선행요인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실버세대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인터넷 사용의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Lam & Lee[19]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사용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수입 역시 인터넷 사용의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수입이 많을수록 가정에 컴퓨터 및 관련 IT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으며[14], 이에 관련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실버세대들의 수입이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의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 H8 : 실버세대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인터넷 사용의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 실버세대들의 수입이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의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그림으로 간략히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의 도시

4. 자료 수집과 설문 결과 분석

4.1 변수의 조작화

변수에 대한 개념정의는 측정대상이 되는 어떤 개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어떤 개념에 대해 응답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명명할 수 있는 상태로

상세한 정의를 내린 것을 말한다.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연구[21, 22, 23, 24, 25, 26]에서는 사용의도를 단순히 특정 IT기술이나 시스템의 수용에 관련된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활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용용도를 설문화하였다. 예

(표 1) 설문항목의 구성

자기 효능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컴퓨터나 인터넷을 배우기가 어렵더라도 나는 뭘 때까지 해 본다. 2.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3.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 2. 나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3.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나는 컴퓨터를 배우는 것과 같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낀다. 5. 주변사람들은 나보다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갈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손자나 자식들이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2. 손자나 자식들이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용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줄 사람이 없어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2. 이전에 방문해보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해서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3. 나는 인터넷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용어와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 4. 나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내 목적에 맞는 자료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5. 인터넷에서 찾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6.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 할 수 있다. 7.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8. 인터넷 음악 사이트를 방문하여 음악을 검색하고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다
유용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정보기술과 기기는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새로운 정보기술과 기기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3.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나도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4. 여유 돈이 생기면 컴퓨터나 정보화관련기기를 우선적으로 사겠다.
활용의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부터 검색해 정보를 검색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일을 처리하겠다. 2. 좋은 자료(디지털 사진, 정보제공 사이트의 주소, 자료파일 등)가 있으면 e-메일,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친지,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다. 3. 은행업무의 필요성이 생기면 인터넷 뱅킹부터 이용할 것이다. 4.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물건의 가격도 비교해 보고, 가능하다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것이다. 5.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는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사이트를 활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6. 처리해야 할 일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볼 것이다. 7. 심심할 때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찾아 볼 것이다.

를 들어 인터넷 정보검색, 자료의 공유,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활용, 게임 즐기기 등 다양한 인터넷 활용방안을 모두 활용의도에 관련된 항목에 반영하였다. 유용성에 관한 설문 항목은 기존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가치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새로운 정보기술과 기기는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과 기기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나도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을 포함시켰다.

유용성과 활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의 용이성 측정항목은 인터넷 활용능력을 토대로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줄 사람이 없어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전에 방문해보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해서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에서 찾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등의 측정항목을 토대로 용이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Hwang과 Yi[30] 등의 연구에 제시된 설문항목을 인터넷 활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세대 간 갈등과 스트레스 관련 항목은 실버세대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구조화하였다. 각 설문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이 1점, ‘동의할 수 없음’이 2점, ‘보통’이 3점, ‘동의함’이 4점, ‘매우 동의함’이 5점’이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4.2 데이터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실버 세대의 인터넷 생활 활용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해 보기 위해 55세 이상의 실버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8명이 설문조사

에 응해 주었으며, 표본 데이터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217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에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성별구성은 남성이 48%(104명)이며 여성이 52%(113명)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사된 표본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기준인 55세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경험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소외감 및 정보격차가 심한 계층일 것으로 파악된다. 2004년 고령자 통계(통계청, 2004)에 의하면 65세 이상 남자 노인 중 약 26%, 여자 노인 중 5.3%만이 고졸 및 대졸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의 경우 고졸(30%) 및 대졸 이상(33%) 이상이 전체의 60%를 넘고 있어 우리나라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응답자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04	48
	여성	113	52
연령분포 (결측자료개수=29)	55-59	47	25
	60-69	81	43
	70 이상	60	32
최종학력 (결측자료개수=2)	초등학교	48	22
	중학교	31	14
	고등학교	65	30
	대학교	60	28
	대학원 이상	11	5
월평균수입 (결측자료개수=28)	50 만원 이하	68	36
	51-100 만원	42	22
	101-150 만원	15	8
	151-200 만원	24	13
	201-250 만원	10	5
	251 만원 이상	30	16

4.3 신뢰성 분석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된 구성개념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알파계수값)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다항목을 이용한 각 요인들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베리맥스회전 방식에 의한 주성분방법에 의거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평가 기준으로서 고유값이 현저히 감소하는 곳에서 요인의 개수를 선정하였고, 요인적재값 0.5이상, 공통성추정치 0.4이상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유용성에 포함시켰던 설문항목인 “여유 돈이 생기면 컴퓨터나 정보화관련기기를 우선적으로 사겠다”와 용이성의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방문하여 음악을 검색하고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다”, 스트레스 항목의 “주변사람들은

나보다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은 요인적재값이 매우 낮고 아무 요인으로도 잡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성검증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계수에 근거하였다. 알파계수의 값이 0.6이상이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1] 본 연구의 경우 세대 간 갈등 외에는 모두 알파계수 값이 0.6이상을 보여 신뢰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요인의 경우 알파계수 값이 .5356이지만 추가적인 분석에는 포함시키고자 한다.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한 최종적인 요인분석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최종종속변수인 인터넷 활용의도에 속하는 항목들은 요인분석이 필요없어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Cronbach 알파계수값은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요약

요인	설문항목	요인적재값	크론바하알파값
자기 효능감	1. 컴퓨터나 인터넷을 배우기가 어렵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 본다.	.702	.8415
	2.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553	
	3.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740	
	4.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13	
스트 레스	1. 나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	.594	.7866
	2. 나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516	
	3.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534	
	4. 나는 컴퓨터를 배우는 것과 같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낀다.	.537	
갈등	1. 나는 손자나 자식들이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723	.5356
	2. 손자나 자식들이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643	
용이성	1.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줄 사람이 없어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773	.9516
	2. 이전에 방문해보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해서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751	
	3. 나는 인터넷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용어와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	.816	
	4. 나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내 목적에 맞는 자료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789	
	5. 인터넷에서 찾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856	
	6.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 할 수 있다.	.790	
	7.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836	
유용성	1. 새로운 정보기술과 기기는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854	.8968
	2. 새로운 정보기술과 기기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761	
	3.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나도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813	

0.9436으로 도출되어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연구모형의 검증

우선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수인 실버세대들의 향후 인터넷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두 선행요인들과 관련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선이 관찰값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결정계수(R²)는 0.706이다. 즉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인터넷 활용의도에 관한 변동의 70.6%정도가 독립변수인 태도와 용이성의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F값은 217.318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p값=0.000). 허용도(Tolerance)값이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값도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인터넷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

(표 6) 용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속변수 = 용이성 (Adjusted R ² = 0.572)				
	표준화 회귀계수	t값	p값 (단측검정)	허용도	VIF
자기 효능감	.733	12.836	0.000	.995	1.005
수입	.249	4.358	0.000	.995	1.005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과 2가 모두 지지되었다. 이들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값은 태도가 0.654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고 용이성은 0.267로 나타났다.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효능감, 수입, 용이성, 스트레스, 갈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결정계수(R²) = 0.414로 낮으며, 회귀모형의 F값은 16.7958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허용도값이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값도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요인들 중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p값=0.000)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이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p값=0.028). 갈등요인도 약하나 마(p값=0.089)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들인 인터넷 사용패턴에 짜증을 내고 갈등을 유발할수록 인터넷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약하게나마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수입과 스트레스 요인은 통계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마지막으로 (표 6)에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수로는 효능과 수입만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결정계수(R²) = 0.572, 회귀모형의 F값은 88.292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p값=0.000), 허용도값이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

(표 4) 인터넷 활용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 용이성 (Adjusted R ² = 0.572)				
	표준화 회귀계수	t값	p값 (단측검정)	허용도	VIF
자기 효능감	.733	12.836	0.000	.995	1.005
수입	.249	4.358	0.000	.995	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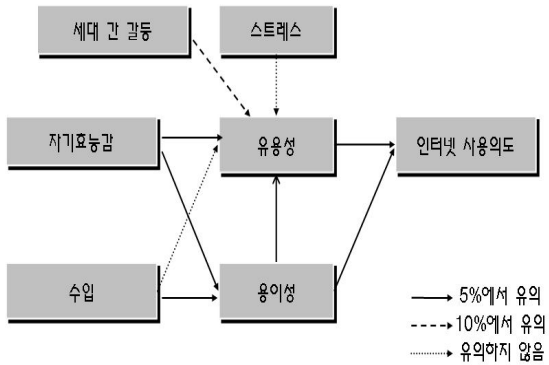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표 5) 유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 태도 (Adjusted R ² = 0.414)				
	표준화 회귀계수	t값	p값 (단측검정)	허용도	VIF
자기 효능감	.471	4.403	0.000	.430	2.326
수입	.068	.854	.197	.786	1.272
용이성	.209	1.922	.028	.418	2.391
스트레스	-.093	-1.219	.113	.854	1.170
갈등	-.106	-1.350	.089	.805	1.242

요인값도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수입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55세 이상의 실버세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실버 세대의 인터넷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의 유의성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술수용모형을 연구모형의 기본틀로 하여 분석한 결과 인터넷 활용의도에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당연할 결과이겠지만 인터넷 활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인지되고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표준화 계수값을 감안하면 유용성이 용이성보다 활용의지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의 가치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가 홍보가 요구된다.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요인들 효능감과 용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이나 스트레스는 10% 유의수준에서도 가설이 기각되었다. 실버세대의 경우 인터넷 사용방법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인터넷 비활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연구조사 결과 [32, 33, 34]에 의하면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에서 공통적인 의견은 ‘정보화에 적응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정보취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소득은 인터넷 활용의 유용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계수의 부호는 0보다 크나 유의성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정도와 관계없이 정보화에 적응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지정도는 10% 유의수준에서 약하나마 인터넷 활용에 대한 유용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또는 주위에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소나마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활용의 폭과 효용성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어 인터넷의 가치 인정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요인으로는 효능감과 수입만을 고려하였는데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중 자기효능감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 또는 소득은 인터넷 활용의 유용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용이성, 즉 정보접근 및 활용능력 차원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 연구에서도 접근의

불평등 증거는 수입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한다 [19]. Van Dijk et al.[35]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소득이 정보격차를 불러일으키는 중요 요인임을 분석한 바 있는데, 이는 소득은 정보화의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용이성을 통해 유용성과 활용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실버세대의 인터넷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가치를 체험적으로 인지시키고(인지된 유용성 제고) 활용능력을 제고하는(인지된 용이성 및 자기효능감 제고)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세대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정보이용시설이 확충하고 동시에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확보하여 이들 세대가 공동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고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교나 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하고, 기자재, 강사, 교재, 콘텐츠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설이 폭넓게 확충되어야 맞춤형 정보화 교육 및 정보 활용생활에 대한 상담활동 등이 가능할 것이다.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용이성 및 자기효능감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버세대에 적합한 기기나 SW 개발이 필요하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 실버세대용 정보통신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시급하다. 사업성이 낮은 기기개발을 민간업체로부터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체 인구에서 실버세대 비율이 10%를 넘어선 이 때 정보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 계층은 우리 사회의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 이들 실버세대들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의 근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다양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참 고 문 헌

- [1] 김은정, 세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세대공감 정책방안, KADO 이슈리포트 3-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2007.
- [3] 통계청, 「2007년 고령자 통계, 2007.
- [4] 김용순, 최영훈, 노인정보화와 노인복지간의 관계 : 공무원, 전문가 및 노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pp. 167-193, 2007.
- [5] 고정현, 이재웅, 2005 정보격차 현황 분석과 제언,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05-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 [6] 최두진, 고정현, 김은정, 장주병, 박세은, 「정보격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 [7] 세계일보, 2008년 3월 1일자 기사, 2008.
- [8] 김은정, 이재웅, 양희인, 2007년 정보격차 현황분석 및 시사점, KADO 이슈리포트 5-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 [9] 김정언, 노용환, 최두진, 정부연, 김재경, 고령층의 정보격차 현황 분석 및 정책 방안, KISDI 이슈리포트 07-17,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10] 박충선, 이춘옥, 노년의 정보화태도와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지역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pp. 25-44, 2003.
- [11] 이금룡,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노년기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37호, pp. 7-30, 2007.
- [12] 서혜경, 김은주, 노인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10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4(2), pp. 21-39, 2004.

- [13] Kim, B. G., Park, S. C. and Lee, K. J.,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Internet Acceptance in Korea,"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6, pp. 425-432, 2007.
- [14] Porter, C. E. and Donthu, N., "Us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 Explain How Attitudes Determine Internet Usage: The role of Perceived Access Barriers and Demographic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 pp. 999-1007, 2006.
- [15] DiMaggio, P., Hargittai, E., Celeste, C., and Shafer, S. From Unequal Access to Differentiated Use: A Literature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on Digital Inequality, Report prepared for the Russell Sage Foundation, 2002.
- [16] Marquie, J. C. Jourdan-Boddaert, L., Huet, N., "Do Older Adults Underestimate their Actual Computer Knowledge?,"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21(4), pp. 273-280, 2002.
- [17] Charness, N., Schumann, C. E., & Boritz, G. A. "Training Older Adults in Word Processing: Effects of Age, Training Technique and Computer Anx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Technology*, 5(1), pp. 79-106, 1992.
- [18] Kelley, C. L. and Charness, N., "Issues in Training Older Adults to Use Computers,"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14(2), pp. 107-120, 1995.
- [19] Lam, Jolie C. Y. and Lee, Matthew K. O., "Digital Inclusiveness - Longitudinal Study of Internet Adoption by Older Adult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2(4), pp. 177-206, 2006.
- [20]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pp. 319-340, 1989.
- [21] Venkatesh, V. and Davis, F. D.,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46, pp. 186-204, 2000.
- [22] Davis, F.D., Bagozzi, R. P. and Warshaw, P. R.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Vol. 35, pp. 982-1003, 1989.
- [23] Agarwal, R. and Karahanna, E.,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Cognitive Absorption and Belief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MIS Quarterly*, Vol. 24, No. 4, pp. 665-694, 2000.
- [24] Gefen, D., and Straub, D.W.,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se of E-Mail: An Extension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MIS Quarterly*, Vol. 21, No. 4, pp. 389-400, 1997.
- [25] Igarria, M., Zinatelli, N., Cragg, P. and Cavaye, A. L. M., "Personal Computing Acceptance Factors in Small Firm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MIS Quarterly*, Vol. 21, No. 3, pp. 279-305, 1997.
- [26] Jackson, C.M., Chow, S. and Leitch, R.A.,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an Information System," *Decision Sciences*, Vol. 28, No. 2, pp. 357-389, 1997.
- [27]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 191-215, 1997.
- [28]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29] Leung Louis and Paul S. N. Lee,(2005) Multiple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the roles of Internet activities, use of new median, social

- support and leisure activities, *Telematics and Informatics* 22, pp. 161-180, 2005.
- [30] Hwang, Yujong, Mun Y. Yi, Predicting the use of web-based information systems :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efficacy, *Eighth Americas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02.
- [31] Hair, J. F., Jr., R. E. Anderson, R. Tatham, L. and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 9ed., Prentice Hall, 1998.
- [3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저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2004.
- [3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 지수조사, 2005.
- [3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해소백서, 2005.
- [35] Van Dijk, Jan A. G. M., Hacker, K., *The digital divide as a complex and dynamic phenomenon. Information Society* 19, 315-326, 2003.

◎ 저 자 소 개 ◎



김 미 량(Mi-Ryang Kim)

1987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학사)
 1989년 Lehigh University 대학원 교육공학과 졸업(석사)
 199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전공(박사)
 1999년 ~ 현재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 교수설계, e-Learning/u-Learning 콘텐츠 설계 및 개발, 혁신의 확산
 E-mail : mrkim@skku.ac.kr



김 태 웅(Tae-Ung Kim)

1978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학사)
 1982년 Indiana University 경영대학원 MBA
 1986년 Purdue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Ph.D)
 1988년 ~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공급망관리, 디지털 콘텐츠 개발전략, 정보격차 해소
 E-mail : tukim@skku.edu



김 재 현(Jaehyun Kim)

1988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졸업(학사)
 1992년 Western Illinois University 대학원 전산학과 졸업(석사)
 2000년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원 전산학과 졸업(박사)
 2001년 ~ 2002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Chief Technology Officer
 2002년 ~ 현재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 객체지향 소프트웨어공학, 컴포넌트 기반 개발(CBD), 컴퓨터교육, etc.
 E-mail : jaekim@skku.edu